

# 가철성 의치장착 노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유상희<sup>1\*</sup>, 강은정<sup>2</sup>

<sup>1</sup>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sup>2</sup>대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The Convergence factors on Dentur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Sang-Hui Yu<sup>1\*</sup>, Eun-Jung Kang<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가철성 의치장착 노인의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157명). 의치만족도 전체 평균은 3.62로 나타났다. 의치만족도의 세부요인별 만족도는 저작 만족도(3.81), 의치 고정 만족도(3.66), 일반적 만족도(3.46) 순이었다.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여가활동 여부, 한 달 용돈,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치와 관련된 특징보다는 의치장착자의 일반적 특성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의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의치장착자의 사회적 요인(여가생활, 경제적 수준 등) 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가철성 의치, 노인, 의치만족도, 융합 요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dentur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in Jeonju(N=157). The average of denture satisfaction was 3.62. As for denture satisfaction per sub-factors was in order of masticatory satisfaction(3.81), fixation satisfaction(3.66) and general satisfaction(3.46). The convergence factors on the denture satisfaction were the perceived oral health state, leisure activity, monthly pocket money, and visiting dental clinic. As a result,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nture satisfaction wer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nture wearers rather than denture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ocial factors(leisure life, economy level, etc.) of denture wearers in order to increase the denture satisfaction.

**Key Words** : Removable denture, Elderly, Denture satisfaction, Convergence factor, Perceived oral health state

###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

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7년에는 그 비율이 14.2%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1]. 노

\*Corresponding Author : Sang-Hui Yu(wsh7901@naver.com)

Received October 28,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29,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노인복지 보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문제와 더불어 노인들의 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2,3].

노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강건강 문제는 치아 상실로, 치아의 상실은 저작능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저작불편을 호소하며, 노인 10명 중 1명이 무치악자라고 보고하였다[4,5]. 치아 상실은 음식물 섭취에 영향을 미치며 식사의 양과 질이 저하되어 건강상태와 체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6]. 뿐만 아니라 발음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도 제한을 주어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7,8].

결손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철치료 중 하나인 가철성 의치가 주로 사용되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치아상실로 인한 노인의 구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치와 같은 보철치료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3,8]. 상악이나 하악의 치아가 전부 결손되었을 때는 총의치(complete denture)로 회복하고, 전악의 치아가 아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치아가 결손되었을 때는 부분의치(partial denture)로 회복을 하게 된다[9]. 최근 새로운 기술 개발로 치료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으나, 상실된 치아가 많을 경우, 이로 인해 손상된 기능적, 심미적 구강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방법은 아직까지 총의치나 부분의치가 사용되고 있다[8,9].

의치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환자의 나이, 기대감, 환자의 구강 내 상태, 사회 경제적인 상황 등 의치장착자의 개인적 요인과 의치의 질, 의치경험 유무, 무치악 기간 등 의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10-13]. 그러나 의치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고, 측정 시 사용하는 방법 및 설문 타당성과 신뢰성 확립이 어려워 일관성 있는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11]. 또한, 조사대상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대상자의 느낌과 감정이 개입될 수 있어 의치만족도는 과학적인 공식이나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으로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명확한 요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분의치, 총의치같은 가철성 의치

를 장착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의치장착 노인의 구강 건강증진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무작위 표본 추출로 선정된 전라북도 전주시에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가철성 의치를 장착한 65세 이상 노인 157명이었다.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연구자를 포함한 1명의 훈련된 조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 모두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수를 G\*power 3.1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선행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 12개,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를 적용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수가 127명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 적절한 표본수라 할 수 있겠다.

### 2.2 연구방법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최종학력, 한 달 용돈, 여가활동 여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등 7문항이었고, 의치관련 특성은 의치 종류, 의치사용 기간, 의치제작 횟수, 의치제작 장소,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 여부 등 5문항이었다. 의치만족도는 총 10문항으로 일반적 만족도 4문항, 저작 만족도 3문항, 의치조정 만족도 3문항으로 나뉘며, 임[9]의 연구에 이용하였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치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일반적 만족도 0.821, 저작 만족도 0.925, 의치조정 만족도 0.671이었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일반적 만족도 0.818, 저작 만족도 0.642, 의치조정 만족도 0.508이었으며, 의치만족도 전체는 0.838이었다.

###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22.0 프로그램(SPSS

22.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리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의치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multiple range test로 하였다.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의치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의치만족도는 Table 1과 같다. 의치만족도 세부요인별 만족도는 일반적 만족도 3.46, 저작 만족도 3.81, 의치고정 만족도 3.66으로 저작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치만족도 전체 평균은 3.62로 나타났다.

Table 1. Denture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Denture satisfaction	Meant±SD
General satisfaction	3.46±1.12
Masticatory function satisfaction	3.81±0.98
Fixation satisfaction	3.66±0.87
Total	3.62±0.83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가 26.8%, 여자가 73.2%이었고, 연령은 70대(70-79세)가 43.2%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다가 71.3%, 없다가 28.7%이었으며, 최종학력은 초졸 미만이 52.6%, 초졸 이상이 47.4%이었다. 한 달 용돈은 30만원 미만이 60.1%로 나타났고, 여가활동은 있다가 76.4%, 없다가 23.6%이었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4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의치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는 최종학력( $p<0.05$ ), 한 달 용돈( $p<0.05$ ), 여가활동( $p<0.001$ ),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p<0.001$ )이었다.

Table 2. Denture satisfactio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N(%)	Meant±SD	t or F (p)
Gender	Male	42(26.8)	3.70±0.74	0.723 (0.471)
	Female	115(73.2)	3.60±0.87	
Grade	65-69	29(18.7)	3.70±0.73	0.665 (0.516)
	70-79	67(43.2)	3.54±0.83	
	≥80	59(38.1)	3.70±0.90	
Religion	Yes	112(71.3)	3.61±0.86	-0.416 (0.678)
	No	45(28.7)	3.67±0.76	
Education	<Primary school	80(52.6)	3.48±0.93	-2.256 (0.026)
	≥Finished primary school	72(47.4)	3.79±0.70	
Monthly pocket money	<300,000	92(60.1)	3.49±0.88	-2.198 (0.030)
	≥300,000	61(39.9)	3.80±0.75	
Leisure activity	Yes	120(76.4)	3.76±0.81	3.675 (0.000)
	No	37(23.6)	3.20±0.78	
Perceived oral health state	Healthy	73(46.5)	4.02±0.68 <sup>a</sup>	20.931 (0.000)
	Normal	25(15.9)	3.56±0.68 <sup>b</sup>	
	Non	59(37.6)	3.17±0.84 <sup>b</sup>	

<sup>ab</sup>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one-way ANOVA.

#### 3.3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의치관련 특성은 조상대상자의 의치가 총의치를 포함한 경우 52.2%, 부분의치만 있는 경우 47.8%이었고, 의치 사용 기간은 0-2년이 36.1%, 3-5년이 36.8%, 6년 이상이 27.1%로 조사되었다. 의치제작 횟수는 1회가 40.6%로 가장 많았고, 의치를 제작한 곳은 치과가 63.1%로 가

Table 3. Denture satisfaction by the denture related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N(%)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Meant±SD	t or F (p)
Denture types	Including complete denture	82(52.2)	3.47±0.85	-2.396 (0.018)
	Only partial denture	75(47.8)	3.79±0.79	
Wearing period	0-2	56(36.1)	3.39±0.86 <sup>a</sup>	4.407 (0.014)
	3-5	57(36.8)	3.84±0.73 <sup>b</sup>	
	≥6	42(27.1)	3.69±0.85 <sup>ab</sup>	
Denture production times	1	63(40.6)	3.68±0.82 <sup>ab</sup>	3.640 (0.029)
	2	52(33.5)	3.79±0.78 <sup>a</sup>	
	≥3	40(25.8)	3.34±0.89 <sup>b</sup>	
Denture production place	Dental clinic	99(63.1)	3.62±0.85	0.134 (0.874)
	Public health center	12(7.6)	3.52±0.74	
	Unlicensed person	46(29.3)	3.66±0.84	
Visiting dental clinic	Yes	84(53.5)	3.42±0.87	-3.489 (0.001)
	No	73(46.5)	3.86±0.72	

<sup>ab</sup>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one-way ANOVA.

장 많았다.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은 그렇다 53.5%, 아니다 46.5%이었다.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는 Table 3과 같이 의치 종류( $p<0.05$ ), 의치사용 기간( $p<0.05$ ), 의치제작 횟수( $p<0.05$ ),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 $p<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3.4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영향 요인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여가활동 여부, 한 달 용돈,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 여부이었다.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정기적으로 치과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 의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F값이 21.321,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형의 설명력은 36.2%로 나타났다.

Table 4. The convergence factors on the denture satisfaction

Variables	B	SE	$\beta$	t	p
Perceived oral health state	0.324	0.047	0.467	6.898	0.000
Leisure activity	0.430	0.134	0.218	3.217	0.002
Monthly pocket money	0.106	0.031	0.235	3.480	0.001
Visiting dental clinic	-0.350	0.116	-0.206	-3.026	0.003
F= 21.321	Adjusted R <sup>2</sup> = 0.362				

Meaningless value statistically is not shown on the table( $p>0.05$ ).

##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가철성 의치장착 노인의 의치관련 특성과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만 65세 이상의 가철성 의치장착 노인(157명)을 대상으로 의치만족도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의치만족도 전체 점수는 5점 만점에 3.62로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각 세부요인별 만족도 점수는 일반적 만족도 3.46, 저작 만족도 3.81, 의치고정 만족도 3.66으로 저작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치만족도는 장 등[14]의 연구에서 보고된 저작기능 만족도 3.87, 의치고정 만족도 4.07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한 이와 유[3]의 연구에서 보고된

저작기능 만족도 3.20, 의치고정 만족도 3.45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거주지가 도시와 농촌으로 서로 달라서 나타난 차이로 생각할 수 있으며, 유[15]의 연구에서도 도시와 비도시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의치만족도는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 한 달 용돈, 여가활동,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유[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치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장 등[14]의 연구에서는 수입의 증가에 따라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도 상대적으로 증가되면서, 장착한 의치나 지대치의 재료와 질, 치과방문으로 인한 꾸준한 구강 상태 관리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가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의치관리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는 의치종류, 의치사용 기간, 의치제작 횟수,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치사용 기간의 경우 3년 이상에서 의치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치장착 후 1-2년이 지나면 의치만족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한 Bates & Murphy[16]의 연구와 일치하며, 현재의치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서 저작기능 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던 반 등[13]의 연구와도 일부 일치한다. 의치 종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장착한 의치에 총의치가 포함된 사람과 오직 부분의치만 장착한 사람으로 구분하였고, 의치에 총의치가 포함된 사람의 의치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의치 종류의 경우 상악과 하악에 장착한 의치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상, 하 모두 의치를 장착한 사람과 편측에만 의치를 장착한 사람이 있으며, 의치가 총의치와 부분의치로 다양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여가활동 여부, 한 달 용돈, 의치관련 정기적 치과방문 여부이었다, 가장 큰 영향요인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이었다. 특히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등[17]의 연구,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양호할수록 의치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강[18]의 연구와 일치한다. 장 등[14]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의치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노인의 치아나 잇몸, 의치 등 입안의 문제로 인한 구강증상은 저작이나 발음에 불편을 느끼는 구강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결정하게 된다[7]. 따라서 의치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강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인구강교육과 구강보건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외에도 여가활동, 한달 용돈과 같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치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치와 관련된 특성들에 더 초점을 맞춰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라 여가활동, 경제적 수준 등 의치장착자의 개인적 요인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현대사회의 노인 여가시설인 우리나라 경로당을 다양한 취미와 오락시설, 충분한 공간을 갖춘 선진국의 노인시설을 참고하여 개선해나가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노인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의치장착 노인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의치장착 노인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하려 수 없으며,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이 약 36%인 것으로 볼 때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완한 의치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8). *National statistics*. Statistics Korea [Online]. <http://www.kostat.go.kr>.
- [2] S. H. Yu, Y. I. Kim & H. S. Lee. (2008).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32(4), 575-586.
- [3] G. R. Lee & W. K. Yoo. (2010). A Study on Denture Satisfaction in Rural Elderly People. *J Agri Med & Community Health*, 35(1), 56-66.
- [4] Y. O. Kwon, M. S. Choi, J. H. Lee & H. K. Yun. (2014).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geriatric denture-related characteristics, denture satisfaction, and GOHAI.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4), 399-407. DOI : 10.14400/JDC.2014.12.4.399
- [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Korea Health Statistics 2013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1)*.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6] N. H. Kim, D. H. Han, S. J. Hwang, A. R. Kim, W. K. Chung & H. D. Kim. (2008). Validation study of masticatory dysfunction questionnaires among the elderly in Korea. *J Korean Acad Dent Health*, 32(1), 75-85.
- [7] S. E. Heo, J. H. Ji, S. C. Yi & J. H. Heo. (2016). The Relevance of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Oral-Cavity for Removable Dentur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Over 65 Years of Ag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3), 135-146. DOI : 10.12811/kshsm.2016.10.3.135
- [8] M. W. Shin, S. H. Min, Y. N. Park & H. H. Min. (2010). Complete denture satisfaction by the subjective oral health state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5), 798-805.
- [9] Y. H. Lim. (2012). *A study on patient's satisfaction with removable denture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10] S. B. Critchlow & J. S. Ellis. (2010). Prognostic indicators for conventional complete denture therapy: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Dent*, 38(1), 2-9. DOI: 10.1016/j.jdent.2009.08.004
- [11] J. S. Byun, L. R. Cho, D. G. Kim, Y. H. Huh & C. J. Park. (2014). Various factors influencing on the satisfaction of complete denture wearers. *Journal of Dental Rehabilitation and Applied Science*, 30(1), 53-63. DOI : 10.14368/jdras.2014.30.1.53
- [12] W. Kalk & C. de Baat. (1990). Patient's complaints and satisfaction 5 years after complete denture treatment.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8(1), 27-31. DOI: 10.1111/j.1600-0528.1990.tb00657.x
- [13] Y. S. Ban, K. B. Song, S. H. Jeong & K. H. Jo. (2001).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removable dental prosthesis among patients in private dental clinics. *J Korean Acad Dent Health*, 25(1), 79-94.
- [14] I. J. Chang, S. H. Jeong, Y. A. Park, H. K. Lee & K. B. Song. (2006). Association between dent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oral health among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J Korean Acad Dent Health*, 30(3), 360-369.
- [15] S. H. Yu. (2008). *A study on dentur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relate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16] J. F. Bates & W. M. Murphy. (1968). A survey of an edentulous population. *Br Dent J*, 124, 116-121.
- [17] J. H. Lee, M. H. Cho & D. H. Moon. (2015).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nture satisfaction in the low income elderly people. *J Korean Soc Dent Hyg*, 15(1), 73-79. DOI : 10.13065/jksdh.2015.15.01.73
- [18] Y. J. Kang. (2012). A study on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and denture satisfaction among elderly people. *J Korean Soc Dent Hyg*, 12(2), 355-363.

유 상 희(Sang-Hui Yu)

[정회원]



- 2008년 8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0년 8월 : 원광대학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치기공학, 치의학

· E-Mail : wsh7901@naver.com

강 은 정(Eun-Jung Kang)

[정회원]



- 2018년 8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7년 8월 ~ 현재 : 삼육보건 대학교 치위생과 외래교수
- 2018년 8월 ~ 현재 : 대원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예방치학, 구강보건학

· E-Mail : ydk4577@naver.com